

## 2011.10.04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9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('12~'17)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## □ 추진배경

## ○ MB 정부 출범이후 식품산업 육성 정책 본격 추진

-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('08.3)하고, 식품산업정책관실 신설
- 식품산업진흥법령 제정('08.6) 및 식품산업 종합대책 발표('08.11)
  - ※ 종합대책 : '12년까지 식품산업 매출 150조 및 수출 100억불 달성 등 목표
  - '09년 매출액 131조 및 '10년 수출 59억불로, '12년까지 무난히 목표 달성 예상

## ○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

- 농식품부 출범후의 성과 평가 및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, 금번 대책 마련(업체·전문가 등과 25회 협의·토론, '10.8~'11.5)
  - ※ 법 제4조: 농어업과 연계강화, 기본방향, 전통식품 등 9개 사항 규정

## ○ 세계식품 산업규모('09년)는 4.9조 달러로서 지속 확대 예상

- 세계시장은 II(3.5조), 철강(0.5)보다 크며, '20년 6.4조 달러 전망(Datamonitor, '09)
- 국내 식품산업도 크게 성장 중이나, 영세성으로 지속성장 한계도 존재
  - ※ 식품제조업 54천개소 중 5인 미만 84.5%('09, 통계청)

## □ 그간의 추진성과 및 당면과제

## 1. 성과

## ○ 식품산업은 국가 전체 GDP 보다 높은 고성장세 유지

- 성장률('05~'09년) : 식품제조/외식분야 8.6/11%, 전체 GDP 3.38%

- '10년 농식품 수출액은 59억달러로 사상 최고 달성('07년대비 1.6배↑)
  - ※ '88년 32억불 수출 후 40억 돌파에 20년 소요되었으나, '09~'10년 1년내 10억불 수출증가

## ○ 식품 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전통·발효식품 시장 급성장

- 식품 R&D를 농어업과 분리('10.1), 6대 전략분야 지원('10: 183억원)
  - ※ 세계 두 번째로 과일·채소 선도 유지제 개발, 친환경 식품 위생·소독제 개발, 전통주 제조 전용 누룩 17종 및 천연 조미료 개발
-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으로 민간자본 유입('10: 250억 → '11: 360)
- 막걸리 '09년 히트상품 1위' 선정('09 : 4,400억원→ '10 : 7,100, 61% 증)
- 천일염 산업화 시작('09.3월) 및 고추장·된장·인삼의 CODEX 규격 채택 ('09.7)으로 세계화 기반 마련

## ○ 우리식품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해외진출 가속화

- 2009년 국가브랜드 지수 중 fine-dining 분야 6위 거양
- 토종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확산('05: 42업체/ 215점포 → '10: 56/993)

## 2. 당면 과제

## ○ 핵심 원천기술 확보, 인력양성 등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

- 식품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30~65%, R&D 규모는 식품산업 매출액 대비 0.57%에 불과(전체산업 2%, 제조업 2.5%, '09 통계청)
- 식품 산업체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인프라 미흡

## ○ 신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

- 교민시장 위주의 수출, 대량 수출품목 부재 등으로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고, 한식세계화 사업과 연계 미흡
- 기능성 식품, 전통발효식품 등 고부가 아이템 지원 부족

## ○ 소비자 권리보호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

- 상품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인증제 난립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
- 식품수입 증가 등으로 식품안전사고 가능성 상존

## □ 주요 내용

### 1.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

#### ○ 식품 R&D를 확대하고 연구·수출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

- '17년까지 선진국 대비 85%수준으로 식품기술 향상
  - '20년까지 R&D 규모를 식품제조업 매출액 3%로 확대(민간 포함)
    - ※ 정부투자(안) : ('09)1,040억원 → ('17)4,063억원 → ('20)5,490억원
  - 식품소재·식품가공 등 18개 핵심 기술을 우선 개발
- '15년까지 전북 익산에 수출 지향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
  - 기능성평가·품질안전·패키징 센터 등 3대 R&D 센터 및 150여개 기업·연구소 유치(매출 4조, 고용 22천명 효과)
  - 농어업-식품, 벤처·중소기업-대기업간 동반성장 체계 구축
    - ※ 일정 : 국가산업단지 지정·착공('12) → 단지 조성('13-'14) 및 입주('15~)

#### ○ 식품 인력양성 시스템 확충 및 통계·정보 관리 강화

- '17년까지 식품인력 10만명 교육 실시('10년 2,100명)
  - 식품인력 양성·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전문 양성기관 지정
    - ※ '09년부터 식품진흥 관련 교육이 시작되었으나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추진
    - ※ aT 농식품유통교육원, 한국농수산대학, 민간 위탁기관 등이 기관별 목표설정
- 수요자 중심의 통계 확충, 미래 유망분야 통계·정보조사 강화
  - ※ 업체의 원료소비 실태, 시장규모·경쟁현황, 외식업 통계 정보구축 등 추진

#### ○ 민간투자 활성화 및 농수산식품기업 One-Stop 서비스 지원

- '17년까지 식품 모태펀드 투자를 최대 4,000억으로 확대('10, 250억)
  - ('10) 1개 투자조합 250억(정부출자 40%) → ('11) 2개, 360억 이상→ ('17까지) 19개, 최대 총 4,025억원 목표(정부출자 총 1,610억)
    - ※ 신성장동력 육성 펀드(3조 736억원)가 식품분야에 투자되도록 고부가 식품 산업 범위를 설정하고, 식품기업의 코스닥 상장 적극 유도

-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신설, 상담·수출·마케팅 One-Stop 지원
  - '17년까지 매출액 100억 기업 2,000개 육성('10, 946개소)
    - ※ 애로접수·상담 → 기업진단 → 경영·기술 컨설팅, 자금, R&D 등 연계
  - 해외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대상국 시장현황과 전망, 검역정보, 현지 식품기업·유통업체 정보 수집 및 전파

#### ○ 원활한 원료조달을 위해 자급률 상향 및 해외곡물 조달시스템 구축

- 논에 타작물 재배 장려 등, 식량자급률 확대('10: 54.9% → '20: 60%)
- '20년까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곡물 138만톤(연간 수입량의 10%)을 생산할 수 있는 해외농장(38만ha, 동남아)을 개발
  - ※ 옥수수 18만ha(86만톤), 밀 14만ha(39만톤), 콩 6만ha(13만톤)

#### ○ '15년까지 400만톤(연간 수입량의 30%), '20년까지 505만톤의 곡물을 도입할 수 있는 해외 곡물회사 설립('11년 미국법인, 추후 확대)

### 2.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

#### ○ 지역 특화품목을 산업화하고, 농어업과 중소기업 융합 추진

- '17년까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지역전략식품사업단 100개소 육성
  - 사업단의 주식회사 전환 유도 및 농공단지 등과 연계시 가점 부여
    - ※ '05년부터 지역 특산품을 산업화한 54개 사업단 지원(평균 매출액 '10년 340억)
- 매출액 50억원 농공상 융합형 기업을 '17년까지 300개소 육성
  - 관계부처 합동 『농·공·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』 운영

#### ○ 가공산업 육성 및 사이버거래소 활성화로 국산 식재료 소비촉진

- 육가공, 유가공, 수산물, 곡물, 인삼, 채소분야 가공산업 활성화
  - 생산·판매를 일괄 유통하는 대형패커 육성 및 신제품 개발 지원
  - 산지가공시설 확대,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육성
- '17년까지 사이버 식재료 거래량 1조원 달성('10년 1,000억원)
- '15년까지 20개 '우수 외식업 지구' 지정 및 외식산업진흥법령 정비

○ 가공플랜트 확충으로 농어업인의 1기업 창업 지원

- 농식품 가공 플랜트 설치 : (‘10년) 4개소 → (‘17) 100

3. 글로벌 경쟁력 강화

○ 농식품 수출확대 및 식품기업 해외진출 지원

- ‘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추진(‘10년도 59억달러)
· 수출 전략품목(20여개)을 선정하고 교포시장에서 현지인 시장으로 전환
· 품목별 수출협의회 활성화, 물류비 절감 등 수출 지원체계 확충
- 글로벌 수준의 기업육성을 위해 현지 생산·유통 거점 구축 지원
· 식품기업 원료 확보· 해외진출과 ODA사업을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
※ 한국식품의 우수성 광고·홍보 및 상표등록 등 지원 병행

○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세계화 역량 집중

- ‘17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여개 육성(‘10년도 1만여개)
· “해외 한식당 협의체”육성, 맞춤형 창업·경영 컨설팅 지원
※ 전략 지역 : 미국, 동아시아, 5대 전략 품목(안 : 비빔밥, 불고기, 잡채, 갈비찜, 전
- “한식조리특성화 학교” 운영, 스타쉐프 육성 등 한식세계화 기반 확충

○ 전통발효 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원 시장으로 육성(‘10, 2조)

- 김치·막걸리·천일염 산업화를 가속화하고, 기능성 식품 과학화·제품화

4.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

○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를 구축하고,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

- 소비자·생산자·전문가·업계·언론·정부 소통망 구축(기존: 소비자·정부)
· 소비자단체 주관 도축장 위생 점검 강화(위생감시원 : 23천명) 및 소비자 대상 식품안전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‘17년까지 녹색 식생활 실천율 60% 확보(‘09, 10%)
· 정부·민간의 역할분담으로 범국민 운동 활성화 적극 전개
· 성별, 연령별 영양섭취 기준에 적합한 식단 개발 보급

○ 유사 인증제를 ‘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(‘10년 18종)

- 인증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, 수산물 인증제 우선 통합
※ 관련 법령 : 농수산물품질관리법, 친환경농업육성법, 식품산업진흥법, 축산물위생관리법
- 공동 인증로고 도입(‘12.1)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

○ ‘농어장에서 식탁까지’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확대

- GAP 시설·인증농가를 ‘15년까지 총 생산량의 10%로 확대(‘10년 3%)
※ 수입 축·수산물 안전관리 강화(정밀검사, 원산지 검사 강화)
-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 적합률 유지(97~98%)
-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 이력제 ‘14년 본격 시행